

 외교부		보도자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		22-990	
배포일시	2022.11.14.(월)		담당부서	국제기구국	
담당자	이철 국제기구협력관 (02-2100-7224)				

「토마스 앤드류스」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방한

- 토마스 앤드류스(Thomas Andrews, 미국 국적) 유엔 인권이사회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 11.16.(수)-21.(월)간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.

※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* 수임자들이 주어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‘상시초청(standing invitation)’ 제도에 2008.3월 이래 참여(총 128개 유엔 회원국 참여) 중

* 특별절차(Special Procedure) :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국가 또는 특정주제 관련 인권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·분석하여 유엔에 보고(권고 포함)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절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현재 45개의 주제별 특별절차와 14개의 국별 특별절차가 활동 중

-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방한 중 외교부, 법무부 등 정부 부처 인사 및 시민단체와의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며, 이번 방한 결과는 특별보고관의 2023.3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앞 브리핑에 반영될 예정이다.

-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인권 상황을 조사·연구하여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.

-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2020.5월 임기를 개시하였으며, 금번 방한은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첫 번째 공식 방문

※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(인권이사회 전신) 결의(1992/58)에 따라 설치되었으며, 2006년 인권이사회 창설 유엔총회 결의(60/251)에 의해 승계되어 매년 인권이사회 결의로 임무 연장

- 토마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요코타(Yokota) 특별보고관, 랄라(Lallah) 특별보고관, 피네이로(Pinheiro) 특별보고관, 키타나(Quintana) 특별보고관, 이양희 특별보고관에 이은 6번째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

붙임 : 토마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 인적사항. 끝.

성명	o 토마스 앤드류스 (Thomas ANDREWS)	
출생	o 1953년생 / 미국 메사추세츠 출생	
학력	o 1976 미국 Bowdoin College 철학 학사	
주요경력	o 2020-현재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o 2020-현재 Yale Law School 인권 선임 펠로우 o 2011-2016 United to End Genocide 회장 o 2002-2011 Win Without War Coalition 국가 소장 o 1991-1995 미국 Maine 하원의원	